

## Latin America's Perspective of Korea

라틴아메리카의 눈으로 본 한국

### 비무장지대 관광

클라우디아 리

남한에 있다 보면 신기한 일을 겪게 된다. 북한과 남한 사이에 충돌이 생길 때면 나는 어김없이 가족과 친지로부터 내 안위를 걱정하는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외국에서 보기에 이 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상상할 수 있다. 뉴스나 인터넷에서 접하는 남한은 전쟁 직전에 있는 국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전쟁도발, 김정은에 대한 정신 나간 소문, 핵실험... 이런 것들이 신문기사나 인터넷 게시글의 제목을 차지한다. 가끔은 전쟁의 위험이 남한에서 내 삶과 얼마나 먼 이야기인지를 오롯이 전달하기가 힘들다. 이곳의 일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되며, 북한의 무력도발은 잡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아무 걱정 없이 지하철을 타고, 수업도 듣고 친구들과 놀러 나갈 것이라 답한다.

하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가에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한국과 외국 매체에서 다루는 한국 간의 격차가 사라진 것은 바로 비무장지대(DMZ)에 갔을 때였다. 비무장지대는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구역으로,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고 두 국가 사이에 너비 4킬로미터의 땅을 중립지역으로 설정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는 영역이다. 이 구역 안에 남한과 북한의 군인이 마주보고 경계근무를 서는 공동경비구역(JSA)이 위치하고 있다.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곳은 사실상 아직까지 전쟁 상태에 있는 두 국가를 가르는 무장 지역이다. 또한



판문점 (출처: 필자 제공)

과거에는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럼에도 비무장지대는 상업적 여행지로서 용기 있는 관광객에게 열려있다. 그리고 나도 2013년에 미군 위문협회(United Service Organization, USO)가 주관하는 비무장지대 방문에 참가했다.

여행은 시작부터 즐거운 느낌보다는 관광객을 끌어들기 위해 만들어진 명승지의 느낌이 강했다. 방문객들은 보수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눈에 띄는 색상의 옷, 짧은 치마나 바지, 소매 없는 상의는 금지였다. 협회는 북한군이 이러한 의상을 입은 여행객의 사진을 찍어 편파적인 프로파간다에 악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여행객 모두가 이 여행의 위험성을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거나 죽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류 하단에 내 이름을 적었다. 마치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같았다. 관광을 하는 것뿐인데, 사망의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들뜨고 흥분되었지만 일상적인 흥분과는 다른 기분이었다. 공포와 위협의 냄새가 나는 육중한 흥분이었다.

그때부터 위험하다는 긴장감이 들었다. 여행이 시작되고 비무장지대로 다가가자 내가 알던 한국은 백미러 속으로 사라졌다. 서울의 분주함도 사라지고, 고층 빌딩과 시끄러운 자동차는 신비로운 풍경으로 대체되었다. 그때 가시철조망, 초소, 지뢰 매설 경고문과 같은 전쟁의 표상이 나타났다. 남한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 있는 느낌이었다.

관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이드와 함께 했다. 서울에서부터 20명쯤 되는 팀이 단체로 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늘 가이드를 따라다녀야 했다. 우리는 판문점으로 알려진 공동경비구역과 제3땅굴, 도라 전망대를 거쳐 마지막으로 도라산역을 방문하는 코스를 따라 움직였다. 당연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판문점이었다. 파란 건물 뒤로 북한이 바로 보였다. 이 푸른 건물이 유엔 관할 하에 있는 중립 지역으로 회의실로 사용된다. 판문점은 비무장지대를 절반으로 나누는 중앙에 위치한다. 남한과 북한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셈이다. 우리는 회의실을 둘러볼 수 있었다. 방의 반대편 끝까지 걸어가면 사실상 북한 땅에 있는 것이었다. 별 것 아닌 동작에 불과했지만 여행객들은 모두 믿기지 않는 듯이 놀라운 표정으로 방을 오갔다. 우리끼리 농담으로, 친구들에게는 북한에 갔다 왔다고 얘기하자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비현실적인 흥분감이 관광객을 덮쳤다. 건물 내에서 몇 걸음 떼는 것에 지나지 않는 행동이었지만 우리는 ‘은자의 나라’ 여행이라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것 같았다.

판문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기도 했지만 가장 위험한 코스이기도 했다. 우리는 눈으로 직접 반대쪽에 있는 북한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우리와 함께하던 미군 가이드는 북한군을 가리키거나 손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했다. 화를 돋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북한군을 촬영하는 것도 금지되었다. 같이 관광하던 여자아이가 몰래 사진을 찍자 군인이 바로 카메라를 압수해 눈앞에서 사진을 지워버렸다. 군인들은 태권도 자세로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관광객의 행동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진지한 얼굴을 한 경직된 자세의 군인과 카메라를 향해 웃으

며 포즈를 취하는 흥분한 관광객이라니, 참 어울리지 않는 것이 병치된 이상한 광경이었다. 이 모든 상황이 블랙코미디 영화에서 따온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러한 초현실적인 분위기가 여행 내내 계속되었다. 가끔은 우스꽝스러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관광 중에 비무장지대의 자연과 야생동물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기도 했다. 금지 구역만의 장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대가 자연 원시림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다. 인간과 접촉이 전무



판문점 회담장 내부 (출처: 필자 제공)

했기에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는 꽃필 수 있었고, 현재 이 지역은 생물학적으로 많은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는 홍보 영상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비무장지대는 살아있습니다(The DMZ is ALIVE)”라고 선포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물론 비디오가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지뢰와 철조망이 깔린 군사 지역을 ‘살아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고 역설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사 지역으로 남는 한 그 모든 생물학적 가능성에 접근할 수도 없다. 과학자는 비무장지대를 연구할 수도 없으며,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다. 중남미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은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반도의 슬픈 정치적 현실이 한국인에게서 또 하나의 선물을 빼앗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긴장과 슬픔, 공포와 위험성, 그리고 역설적인 체험은 곧 의문으로 바뀌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나는 비무장지대 여행이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혔다.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위험이 있었다. 비무장지대는 적대적인 두 세력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무장지대이다. 두 국가 간의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관광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또한 관광이 가능할 때에도 늘 노련



비무장지대 (출처: <http://club.koreadaily.com>)

한 전문가가 동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급작스런 사고나 응급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특히 요즈음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극단적인 불안정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관광 상품은 지나치게 위험해 보인다. 우리가 여행 하나에 사생결단을 내려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뚜렷한 역사적 교훈이 아직은 가시적이지 않기에 의문은 더한다. 전쟁 유적지이든 수용소이든 대다수의 역사적인 관광지는 이미 종결된 갈등을 대변한다. 이러한 곳을 관광하면 우리는 희생자를 위해 눈물 흘리거나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서 완결된 결론을 가지고 문을 나선다. 우리는 과거의 비극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지만 미래를 향한 희망을 안고 돌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비무장지대에서는 불가능하다. 분명히 나는 이 여행에서 매우 많은 양의 역사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했다. 또한 남한과 북한 사이의 현 관계를 조망할 배경을 좀 더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느낌이었다. 나는 마치 역사적 사건에 끼어드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불안정한 장소에 관광객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고 생각했다.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역사와 시간도 판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문외한인 외국인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자신들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조차 가지 못하는 비무장지대를 왜 외국인인 우리는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많은 외국인이 비무장지대에 이끌리는 이유이자 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래서 나 또한 위와 같은 난점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오는 외국인에게 비무장지대 여행을 권장하고 싶다. 비무장지대 관광은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유일하고도 희귀한 기회이다. 남한에서만 할 수 있는 평생 남을 경험이며 다른 어떤 관광지와의 차별된다. 아시아를 많이 여행해 본 사람은 곧 아시아 국가 간의 유사성을 깨닫고, 한 나라를 방문하면 다른 나라를 연상할 것이다. 남한은 물론 독특한 나라이고, 중국이나 일본과 혼동할 수 없지만, 나 역시도 경복궁을 찾았을 때는 북경의 자금성을 떠올렸으며, 명동의 골목을 걸으면서 도쿄에 있는 하라주쿠에 쇼핑 갔던 일을 기억했다. 중남미인이 보기에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흐릿한 차이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양적’인 것으로 묶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비무장지대 관광은 그때까지의 내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격동적인 과거에 고통 받고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한국의 면모를 드러낸다. 처음으로 내가 뉴스에서 봤던 한국이 현실이 되었다. 정말로 갈등이 존재하며 전쟁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국가에 내가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비무장지대가 한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알고 있는 한국,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한국은 역동적이고도 열정적이며, 안전하면서도 활기가 넘친다.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지만 비무장지대 관광은 아직



판문점의 헌병들 (출처: 필자 제공)

현실임에도 서울의 마천루로 가려진 국가의 한 단면을 드러내 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여행은 북한이라는 미스터리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준다. 외국인은 원한다면 이 ‘은자의 나라’를 여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모험은 아니다. 비무장지대는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판문점에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는 북한군을 볼 수도 있고, 강저편의 북한 마을도 보인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북한에 대해 가늠해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나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은 북한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하며, 북한을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한다. 어쨌든 북한이야말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한국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금증은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더 강화된다. 남한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북한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두 국가의 운명이 긴밀히 엮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한국 친구들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갖지도 않고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 내가 남한에 머무는 동안 만난 사람 중에 통일을 미래에 가능한 일로 보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아무도 북한을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 북한에 대한 미스터리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북한은 우리의 상상 속에서 얼굴 없는 괴물로 변해간다.

비무장지대를 방문함으로써 나는 겨우 북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도라 전망대에서 안개 낀 북한을 바라보며 마을의 윤곽을 그려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았다. 판문점에서 보초를 서는 북한군을 보고는 교대근무가 끝나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그의 일과를 떠올렸다. 빈속을 달래며 집으로 돌아가 식탁에서 아이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꿈을 꾸는 그를 상상했다. 내 머릿속에서 그들은 나와 같았다. 살아있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었다.

[정민정 옮김]

클라우디아 리 — 파나마에서 태어나서 15년을 거주하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재학

정민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